50돌 맞은 불광, '법회·교육'으로 재도약

10월 12일 50주년 기념법회 봉행
광덕 대종사 포교 원력으로 시작
법등, 구법회 등 신도조직 신기원
동명 스님, 4대 발전 방향 제시해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광사는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미래 100년을 향한 4대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서울 잠실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되짚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불광사는 10월 12일 경내 보광당에서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서울 중심 포교도량으로서 재도약의 서원을 세웠다.

법회에는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을 비롯해 정암·학륜·지명·지철·대원 스님 등 광덕문도회 스님들, 서강석 송파구청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연 '불광'

불광사는 금하 광덕(金河光德, 1927~1999) 스님의 포교 원력으로 비롯됐다. 1974년 3월 대각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광덕 스님은 그 해 9월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하고, 11월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다. 1975년 10월 13일 월간 〈불광〉 창간 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한국사상강연회에서 법회 창립이 구체화됐고, 10월 16일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했다.

1976년 불광법등이 창설되며 신도들이 늘어나자 광덕 스님은 새로운 법당 조성을 위한 불사를 일으켰고, 1982년 10월 24일 지금의 불광사로 법회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이곳에서 광덕 스님은 불광유치원을 개원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고, 불광교육원을 통해서는 전문적인 신도교육을 실행했다.

이처럼 불광법등과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포교 원력의 양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사의 법등운동은 바라밀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전법을 생명으로 하는 운동"이라며 "불광사 법등조직은 재가불자들이 포교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사례가 됐으며, 사찰 내 신도조직의 전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월간 〈불광〉에 대해 서재영 박사는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불광운동의 사상적 발신지"라며 "〈불광〉을 매개로 불광운동이 전개됐고, 마침내 잠실 불광사가 창건되기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2월 27일 광덕 스님의 원적 이후에도 불광사는 전법·포교를 이어갔다. 2007년 법회 임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창불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중창불사를 추진했으며, 2013년 10월 13일 2년 8개월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2015년 1월에는 제2의 불광운동 선포식을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꿨다. 하지만 2017년 시작된 내홍으로 인해 불광법회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 주지스님에 대한 사퇴 요구와 신도들 간의 갈등은 사찰 내 분열을 야기했고 불광사 공동체의 큰 시련이 되었다. 그러나 불광사는 갈등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불광운동의 근본정신인 화합과 원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신도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큰 결속을 이뤄내고 있다.

'기도 · 법회 · 교육 · 복지'라는 초심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불광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이 제시됐다. 주지 동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기도수행 △법회 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라는 네 가지 운영 방향을 전했다. 이는 불광법회가 시작했던 지점과도 맞닿는다.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은 삿된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순수불교'라고 명명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불교를 실천하겠다"면서 "불광사는 토요법회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대에 맞는 법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불법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불광이 현대 한국불교의 역사를 새로이 썼듯이, 불광을 여법하게 지키면 한국불교의 미래도 반드시 밝아질 것"이라며 "저희 불광의 보현행자들은 광덕 큰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 속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음악인상에 조영근 작곡가

불교음악원, 10월 16일 발표

올해 불교음악인상에 조영근 작곡가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불교음악신인상은 임형주 지휘자가 수상했다.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10월 16일 제7회 불교음악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교음악인상 수상자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불교음악신인상 수상자에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올해 불교음악인상을 수상한 조영근 작곡가는 1세대 찬불가 작곡가이자 지휘자다. 1988년부터 약 36년간 찬불가 작곡, 연주, 편곡, 음반 제작에 헌신해 왔다. 대표곡으로는 '향심' '얼마나 닦아야 거울마음 닮을까' '님께로 가오니' '서리꽃의 염원' 등이 있다.

수많은 사찰과 단체에서 합창단을 창립하고 지도한 조 작곡가는 어린이 찬불가, 생활찬불가, 합창곡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찬불가 보급과 포교에 기여했다.

불교음악신인상의 영예를 안은 임형주 씨는 동국대 정각원과 조계종 국방부 원광사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 연합 합창단 로투스 단장을 맡아 유럽·중국 등에서 공연을 열며 성악가로서 불교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제7회 불교음악상 시상식은 10월 24일에 열린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관 개관식 개최

10월 17일 충무로 영상센터 5층서
법인, 총동창회, 학교 상호협력해
사무실, 명예의 전당, 회의실 구비



동국대가 35만 동문을 위한 총동창회관을 이전·개관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10월 17일 서울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5층 회의실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진행했다.〈사진〉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오늘 총동창회관 개관은 학교, 법인, 총동창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뜻을 모았기에 가능했다"고 이전·개관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역대 총동창회장, 불교대학원 혜담 스님, 송석구·윤성이 전 총장 등 동문 120여 명이 함께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충무로 영상센터 5층을 총동창회관으로 사용하며 내부 시설로는 회의실, 명예의 전당, 사무실이 마련됐다.

문선배 동국대 총동창회장은 "35만 동문의 염원이 담긴 총동창회관이 개관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충무로로 총동창회관을 이전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모두 여러분의 조언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법인과 학교와 총동창회가 하나 되어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윤재웅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꿈꾸던 숙원이 오늘 드디어 해결되는 듯하다"며 "법인과 학교 그리고 동창회가 셋이서 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상징적인 날이다. 동창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순표 24대 총동창회장도 "동국대는 10년동안 꿈을 키워오던 곳"이라며 "오늘 동창회가 총동창회관 개관식을 갖게 되니 감동스럽다. 앞으로 동문들이 화합하고 학교와 법인, 동창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의 축배 제의로 개관식은 마무리됐다. 홍파 스님은 "동국대 120주년이 가까이 오는 시기에 총동창회관이 충무로 영상센터에 자리 잡았으니, 앞으로 동문들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 나왔다

문화사업단 10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지서…4편 구성
김보통 작가, 제작에 참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불교 설화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를 제작해 10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했다. 그간 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활성화를 위해 2년간 불교 설화를 소재로 한 12편의 웹툰을 선보였다.

이번 시즌3는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흰양의 윤회 메시지(백양사)' '비맞는 사천왕(불갑사)' '세 여신의 유혹을 이겨낸 지장율사(삼화사)' '용의 머리가 잠든 곳에 지팡이를 꽂다(양평 용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불갑사와 용문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눈길을 끈다.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는 한국불교 우수성과 역사성을 다양한 계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웹툰이다. 특히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와 이광일 실장(비브로스 팀)이 올해도 제작에 참여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3'를 통해 젊은 세대가 불교문화에 친근하게 다가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한 각종 불교문화를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제21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 후보 공모

10월 25일~11월 10일 접수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 스님)이 '제21회 불교활동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법 홍포에 앞장서온 불교활동가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5년 이상 불교계에서 활동한 재가불자와 외국인스님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대상자의 이력서와 활동내역서를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메일(sulpub@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가령 기자

